

2025년
고3
7월 학평

2025년 시행 고3 7월 학평 국어 문학 | 설홍전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설홍이 크게 분하여 돌쇠를 꾸짖으며

“이놈, 너는 승상 택 노복으로 불의한 마음을 먹고 승상을 죽여 소저에게 강상대죄를 범하였으니(돌쇠의 악행. 승상은 설홍의 은인이고, 돌쇠는 승상의 하인인데, 돌쇠가 자신의 주인인 승상을 죽임.) 네 어찌 세상이 용납하리오. (설의적 표현) 내 너에게 이 칼을 더럽히고 싶지 않으나 하는 수 없어 내 칼로 네 목을 베어 소저(승상의 딸)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니, 돌쇠 눈을 들어 보니 쇠금용두 위에 소저를 데리고 앉아 있거늘 돌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며

“이놈, 너는 평생 초면인데 무슨 욕심으로 소저를 빼앗아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못할 바에는 내 칼을 받으라.”(소저를 데려가려는 설홍과 맞서려고 하는 돌쇠)

하며, 온 힘을 다하여 칼을 들어 용두를 치거늘, 설홍이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고(설홍의 비범함) 들어오는 칼을 꺾어 방으로 던졌다. 설홍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놈아, 너는 아직 [강보(포대기)에 싸인 아이]([]: 돌쇠를 아이에 빗대며 무시함.)라. 산을 뿜는 기개를 지닌 초 패왕도 오강을 못 건넜거든 필부 주제에 어찌 역수를 건널 수 있겠느냐?(초 패왕과 관련한 고사를 제시하고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돌쇠를 무시하고 있음.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나를 당하겠느냐. 부디 시키는 대로 하라.”

하니, 돌쇠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힘과 검술은 귀신도 측량치 못하는데 이제 내 칼을 두 번이나 막았으니 이놈은 대단한 놈이라. 힘으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겠다.(설홍이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돌쇠)’]([]: 돌쇠의 내적 독백)

하고, 주머니에서 오색 종이를 꺼내 오방신장(다섯 방향(동서남북과 중앙)을 지키는 신령)에게 지성을 다하여 말하기를

“집안에 도적(설홍)이 들어와 나의 백 년 인연(소저)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보통 놈이 아니다. 네 일시에 일어나 싸우라. 만일 동참하지 아니하면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니 속히 거행하라.(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방인 ‘오방신장’에게 설홍과 싸울 것을 요구함.)”

하고, 풍백에게 보냈더니 문득 공중에서 오방신장이 기치와 창검을 들고 해와 달을 희롱하여 광풍에 조각구름같이 동서남북으로 쫓아 들어와 설홍을 둘러싸고 화살과 돌이 비 오듯 하였다.(과장된 표현을 활용하여 상황의 긴박함을 드러냄.) 그러나 설홍은 조금도 요동치 않고(설홍의 비범함) 둔갑을 베풀어 몸을 감추고(설홍의 변신) 육갑육경으로 오행구궁팔괘를 이십 사방에 붙여 두고 풍운조화를 임의로 부리며 주역 육십사괘 중 축귀문을 소리 높여 읽으니, 오방신장이 각각 방향을 잃었으니 어찌 용납이 되리오.(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문득 광풍이 크게 일어나 사방에서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화살과 돌이 비 오듯 하는지라. 귀신 병졸들이 건디지 못하여 갑옷을 버리고 슬피 울면서 달아나더라. 돌쇠 이러한 거동을 보고 어찌 두렵지 아니하랴.(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오방신장을 이긴 설홍을 보고 두려워하는 돌쇠. 설홍의 비범한 능력에 대해 묻는 문제, 영웅적 일대기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도모하고자 축지법을 써서 도망가거늘 설홍은 광지법을 베풀어 길을 막으니 돌쇠 크게 놀라 문밖에 나오지 못하고 방 안에 돌아다니다가 생각다 못하여 엎드려 빌며 말하기를

“소인의 죄가 많사오나 공자의 넓으신 덕으로 이놈의 가련한 목숨을 살려 주옵소서.”

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설홍과 소저는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이후 가달국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황제를 설홍이 구한다. 이에 설홍은 대원수에 봉해져 가달국에 맞선다.

육목철이 황동으로 먼저 들어가 **대원수(설홍)**를 보시고 **달왕(설홍의 적대자. 이 작품에 나타나는 갈등 관계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을 유인하였다 말하니 원수 들으시고 즉시 병기를 갖추어 고대하더라. 이때 달왕이 황양동으로 들어가니 과연 흠어진 군사들을 거두러 와 보니 골 안에 가득하거늘 마음이 기뻐 왈

“아까 황양동 백성 만나지 못하였다면 북관으로 가다가 설홍의 복병을 듣고 이곳에 우리 군사 저다지 모여 있음을 보니 무슨 걱정 있으리오.”(자기 진영의 군사가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달왕)

하며, 말이 끝나자마자 방포일성 소리 더욱 커지며 **징과 북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함성 소리 땅이 꺼지는 듯하더라.**(과장적 표현) 사방팔방으로 둘러 있고 산 위로 북병이 선득선득 내달아 분별이 없는지라. 사면으로 가달을 첩첩이 둘러싸고 팔방으로 돌렸는데 황진 설홍이 **우레 같은 소리를 천둥같이 내지르며 번개같이 쫓아오거늘**(과장적 표현, 비유적 표현) **달왕이 그제야 황동 내촌 백성에게 속은 줄을 알고**(아까 만난 ‘황양동 백성’에게 속았음을 깨닫는 달왕) 즉시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설홍과 싸울 때 반궁이 분분하여 뒤쫓아 분별하지를 못하겠더라. 칠십여 합에 원수 와룡검을 들어 치니 달왕의 투구 맞아 깨어지거늘 왕이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몸을 바람에 붙이고 창을 번개같이 놀리며 서로 싸울 때 사석이 날려 피차를 분별치 못하더라. 다시 오십여 합에 원수의 와룡검이 번득하더니 달왕이 땅에 엎드리거늘 선봉장 육목철이 달려들어 가달을 사로잡아 바로 결박하여 앉히고 좌우의 장졸이 긴 창을 들고 겨누어 쏘되 원수 설홍은 흥안에 봉목을 부릅뜨고 소리를 크게 지르며 왈 **“이놈 달왕은 항복하라.”**

하는 소리 산악이 무너지는 듯하더라.(과장된 표현을 통해 설홍의 비범한 능력을 강조함.) 달왕이 이런 거동을 보고

“시운이 길하지 못하여 너의 간교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나 너희들이 감히 항복하라고 한 너의 머리를 베어 내 앞에 바치라.”

하니, 원수 분기하여 크게 소리 질러 왈

“네 죄상은 만만가지라 청춘을 아끼거든 항복하라.”

하고, 무사에게 명하여 달왕을 돌아보고 소리하니 달왕의 두 발이 상지하고 몸을 구부리자 결박한 사슬이 터지면서 **달왕이 모습을 바꾸어 흰 꿩이 되어**(달왕의 변신. 이 작품에 나타난 변신 모티프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설홍뿐만 아니라 악인인 달왕까지 변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생왕방으로 달아나거늘 가다가 그물에 걸려 떨어졌다. 원수 군사를 거느려 쫓아가며 그물을 걷어 보니 **흰 꿩은 간데없고 보라매가 성문 밖으로 날아가**(달왕이 흰 꿩에서 보라매로 변신함.) 또 그물 사이 헛득 어리거늘 원수와 육목철이 가면서 이르기를

“달왕은 들어라. 네 변신하는 법을 내 먼저 알거니와 네 어디로 가느냐?”

하니, **난데없는 백호가 내달아**(달왕이 보라매에서 백호로 또 변신함. 달왕의 변신의 강도가 강화되어 나타남. 달왕의 반복되는 변신은 전투가 단순한 일격 승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추격과 긴장 구조로 확장되는 데 기여함. **지칭하는 인물이 다른 하나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설홍은 ‘이놈’, ‘도적’, ‘원수’ 등으로 지칭되고, 달왕은 ‘흰 꿩’, ‘보라매’, ‘백호’ 등으로 변신하고 있으므로 한 인물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고함을 지르니 산악이 무너지며**(과장된 표현을 활용하여 상황의 긴박함을 드러냄.) 암석 사이로 달리며 군사 수백 명을 앞발로 찌고 맨입으로 물어 죽이나 장졸 중에 범을 잡을 자 없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 병장기로 겨누다 소리만 지르고 달아나거늘 백호는 원수와 목철을 바라보고 입으로 돌연 깨무니 백설이 분분한데 앞발로 흙을 파고 다니며 조금도 기탄없이 장난하며 절벽 위로 달아났다. 원수 대호의 하는 거동을 보고 괴이 여겨 급히 쫓아가니 범의 사나움을 더욱 보이는데 원수 따라가며 고함을 질렀다. 원수 실로 이를 잡고자 바위 위에서 떨어지니 달왕이 도리어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변신하여 몸을 바람에 붙여 달아나거늘**(변신과 도술이 결합해 나타나는 부분

으로 이를 통해 작품의 환상성이 부각됨.) **설홍이 쫓아가며 와룡검을 들어 달왕의 머리를 치니 눈 아래 구르는지**
라.(달왕을 죽인 설홍) 원수 본진으로 돌아와 황상을 보시고 달왕의 머리를 바치며 승전고를 울리니 즐거워 하더라.

- 작자 미상, 「설홍전」

핵심 정리

- 갈래: 고전 소설
- 성격: 비현실적, 영웅적
- 주제: 설홍이 겪은 고난과 영웅적 일대기
- 특징
 - 과장된 표현과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영웅적 면모를 드러냄.
 - 다양한 변신 모티프에 의해 서사가 진행됨.

전체 줄거리

덕망 높은 처사 설희문과 그의 아내 맹 씨는 부처님의 점지로 늦은 나이에 아들 설홍을 얻는다. 그러나 맹 씨가 병을 얻어 죽고, 아내 잃은 슬픔에 설희문도 세상을 떠나자 설홍은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설희문의 첩 진 숙인에게 맡겨진다. 그러나 악인인 진 숙인은 시비 윤선을 시켜 설홍을 산중에 내다 버린다. 버려진 설홍은 저승으로 가, 그곳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는 모습을 본다. 염라 왕의 명으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지만 다시 진 숙인의 핍박을 받아 그가 준 독약을 먹고 곰으로 변한다. 진 숙인은 곰처럼 변한 설홍을 '인곰'이라 부르며 학대하다가 강물에 버린다. 이후 설홍은 북산도의 응백에게 구조되지만, 탐욕스러운 명선에게 납치되어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명선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된다. 소주 땅의 왕 승상이 우연히 인곰이 된 설홍을 보고 측은히 여겨 구해 주고, 설홍은 꿈에서 만난 노승에게 약을 받아 먹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다시 인간이 된 설홍은 운담 도사에게 병법과 도술을 배워 영웅의 능력을 갖추다. 그사이 왕 승상은 강포한 하인 돌쇠에게 피살되고, 그의 딸 윤선은 위기에 빠지지만 설홍이 나타나 돌쇠를 죽이고 윤선을 구한 뒤 혼인을 약속하고 헤어진다. 한편 진 숙인은 설홍을 핍박한 죄로 천벌을 받아 거지 신세가 된다. 설홍과 윤선은 각자 여러 차례의 험난한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재회한다. 이후 설홍은 대원수가 되어 가달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위기에 빠진 천자를 구한다. 그 공으로 강동왕이 되고,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 태평성대를 이룬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주인공 설홍의 고난과 영웅적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영웅 소설이다. 국문으로 쓰인 이 소설은 '군담', '변신', '환혼', '연애', '계모와의 갈등', '주인과 노비의 갈등' 등, 조선 후기 통속 소설의 다양한 성공 전략을 두루 적용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는 18세기 이래 세책점(도서 대여점)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독서 문화가 형성되고, 상업적 목적의 방각본 소설이 출현함에 따라 독자의 통속적 취향에 적극적으로 영합하려 했던, 당시 고전 소설의 경향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이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부는 주인공 설홍이 고난을 극복하고 영웅적 능력을 갖추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다. 후반부는 영웅적 능력을 지닌 설홍이 그 능력을 세상에 펼쳐 부귀공명을 얻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다. 제시된 부분은 설홍이 고난을 겪는 장면에서 시작해 운담 도사를 만나 영웅적 능력을 갖게 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담고 있다.